

식생활 변화의



식생활변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식생활변화의 원인

식생활변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우선 식생활의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이 크게 발달되지 못했던 여건하에서 한 지역이나 국가의 기본이 되는 식생활패턴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이나 국가의 식품공급능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 때문에 유목농업(遊牧農業)을 배경으로 하는 민족의 기본 식생활패턴으로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을 중심으로한 육식(肉食)이 자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초지가 부족하고 경종농업(耕種農業)이 대부분인 지역에서는 쌀,

원인과 전망

한번 형성된 식생활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려면 여러세대가 걸린다.

보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곡류(穀類)가 기본 식생활패턴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식생활패턴을 형성케하는 그밖의 요인들로 문화나 종교적 배경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문화나 종교 자체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으로부터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점에서 볼 때 한 지역이나 국가의 기본 식생활패턴은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식품공급능력 즉, 조달조건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형성된 식생활패턴은 쉽사리 변하지 않으며 변하려면 보통 여러 세대를 거치는 것이 특징인데 당대에 변화가 가능하려면 문화적, 사회적 변동을 거쳐 인체의 오각육관에 반복적으로 익숙해질 경우라야 가능하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식탁에 없던 고추가 오랜세대를 거치는 동안 이제는 우리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될 주요식품으로 자리한 것은 과거 우리민족의 식생활패턴 변화의 한 좋은 예라 하겠다.

곡류 및 채소류 위주로 형성된 우리국민의 식생활패턴은 해방이후 40년이 경과하는 동안 6.25라



명 광 식
(농촌경제연구원)

는 엄청난 시련기를 거쳤고, 그외 크고 작은 수많은 사회적변혁과 문화적쇼크를 통해 원했던 원치 않았던 변화를 강요당해 왔다.

즉, 전쟁으로 절대식량이 부족했을 당시 서구(西歐)식품이 원조 형식으로 홍수처럼 밀려들어 왔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유식품이나 커피같이 그때까지 우리의 입맛에 생소했던 식품들이 생리적이거나 문화적인 거부반응을 거치면서 점차 소비를 넓혀가게 되었다. 이같은 새로운 식품의 소비확대는 정도의 차이는 달리할 망정 조달조건에 있어 계속 유리할 경우 여전히 진행되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식품소비패턴으로 자리잡는데 그 좋은 예가 뒤에서 볼 밀가루 소비형태이다.

원칙적으로 인체의 생리구조는 오각 기능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에게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내게 익숙치 않은 이상 좋은 음식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앞서 본 우유제품이나 밀가루와 같이 식품의 조달조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문화적으로 반복해 권유당할 때 물리적 우월성이 발생하여 마침내는 기존 소비패턴에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소비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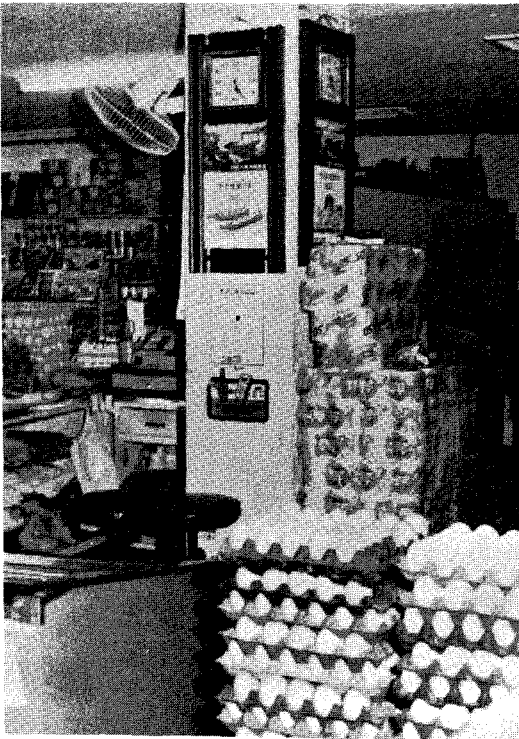
보통 경제학에서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요인으로 파악되는 가격이나 국민소득도 결국은 조달조건의 변화로 이들 변화가 사람들의 기호 변화를 수반 내지 유발하여 국민 대다수에게 확산될 때 국민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食생활변화 추세 및 전망

지역의 식품공급능력에 따라 크게 제한되던 과거와는 달리 교통과 교역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여건변화로 비롯되는 조달조건의 빠른 변화로 식품소비구조도 훨씬 더 빨리 변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965~85) 우리나라의 식품소비패턴은 크게 변했다.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로는 각 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을 들 수 있는데 유사식품군(類似食品群)소비에 큰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때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로 파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인이 소비하는 식품을 크게 소득탄력치가 낮은 곡물류와 소득탄력치가 비교적 높은 축·수산물, 채소, 과일로 나누어 볼 때 곡물의 경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65년의 188.8kg에서 1970년에는 219.4kg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1985년에는 181.7kg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축·수산물과 채소 과일 등 경제작물의 소비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곡물소비량 추이를 곡종(穀種)별로 보면 쌀은 1965년의 121.8kg에서 1970년에는 136.4kg으로 현저히 증가하였고, 보리혼식장려 등을 비롯하여 쌀소비 억제시책을 적극 추진하였던 1972~77년 간에는 120~130kg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획기적인 쌀증산을 이룩한 1977년 말에 정부에서 쌀막걸리 제조를 허용하는 등 쌀소비 규제조치를 해제한 결과 쌀소비량은 다시 급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79년에는 135.6kg으로 증가하였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1979년을 정점으로 또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표 1〉 주요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1965~1985

(단위 : kg)

품 목 별	1965	1970	1975	1980	1983	1984	1985	85 / 65	85 / 80
	(kg)	(kg)	(kg)	(kg)	(kg)	(kg)	(kg)	(%)	(%)
곡 물	188.8	219.4	207.3	195.1	185.2	183.5	181.7	96.2	93.1
쌀	121.8	136.4	123.6	132.4	129.5	130.1	128.1	105.2	96.8
보 리 쌀	36.8	37.3	36.3	13.8	9.5	6.2	4.6	16.8	33.3
밀	13.8	26.1	29.5	29.4	30.6	32.1	31.8	232.6	108.2
콩	4.4	5.3	6.4	8.0	8.2	8.3	9.2	188.6	115.0
서 류	7.3	10.2	7.1	6.3	3.1	3.1	3.1	42.5	49.2
옥 수 수	0.9	1.1	2.4	3.1	2.5	2.3	3.1	344.4	100.0
잡 곡	3.8	3.0	2.0	2.1	1.8	1.4	1.8	47.4	85.7
채 소 류	46.7	59.9	62.5	120.6	110.1	102.6	98.6	211.1	81.8
과 실 류	9.8	10.0	14.0	16.2	26.4	23.0	26.6	271.4	164.2
육 류	4.6	6.6	6.5	11.3	14.9	15.9	16.5	358.7	146.0
쇠 고 기	1.4	1.6	2.1	2.6	2.9	2.6	2.9	207.1	111.5
돼 지 고 기	2.7	3.6	2.8	6.3	7.4	8.4	8.4	311.1	133.3
달 고 기	0.5	1.4	1.6	2.4	3.0	2.9	3.1	620.0	129.2
우 유	2.1	1.8	4.4	10.8	18.2	19.5	27.2	1,295.2	251.9
계 란	1.9	3.2	4.0	5.9	5.9	5.8	6.2	326.3	105.1
수 산 물	18.0	17.3	29.9	27.0	38.1	37.6	37.2	206.7	137.8

* 곡물소비량은 농림수산부의 양곡수급실적표상의 수치이며, 기타 품목은 「식품수급표」 자료에 의하였음. 단, 서류소비량은 정곡기준임.

* 자료 : 농림수산부「양곡수급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식품수급표」

132.4kg, 1985년에는 128.1kg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가계만을 놓고 볼 때는 120kg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일본과 대만의 쌀소비량이 100kg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소비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인당 연간 보리쌀 소비량은 1975년까지는 정부의 보리쌀 소비촉진시책에 힘입어 37kg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여 1985년에는 4.6kg으로 65년도의 16.8%에 불과했다. 앞으로 보리는 일부 건강식 수요를 제외하곤 더이상 우리나라의 주요식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전망이다.

밀가루소비의 경우 1965년 13.8kg에서 75년에

는 29.5kg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60년만 하더라도 밀가루소비량은 보리쌀 소비량의 불과 농 수준인 11.3kg이었으나 그후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여 1977년부터 보리쌀 소비량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보리쌀 소비량의 7배 가까이 되었다. 이러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1985년 현재 약 300만톤의 소맥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식량의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적 이슈(issue)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보리쌀 수요감소와 밀가루 소비증가는 전후 우리나라민의 생활 패턴의 변화 중 획기적 사실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소득탄성치가 비교적 큰 축산물, 채소 및

과일의 소비량은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조달조건
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우
리와 비슷한 식품소비 구조변화를 경험한 일본이
나 대만의 과거 소비변화로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도 더욱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65~85년간의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
추이로 보면 쇠고기의 경우 1965년 1.4kg에 불과
하던 것이 1985년에는 2.9kg으로 약 2.1배가 증
가하였고, 돼지고기는 같은 기간중에 2.7kg에서
8.4kg으로 약 3.1배, 닭고기는 0.5kg에서 3.1kg
으로 약 6.2배, 계란은 1.9kg에서 6.2kg으로 3.
3배가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채소류 소비는 1965년의 1인당 연간 46.
7kg에서 1985년에는 98.6kg으로 증가하여 2 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과일류 또한 같은 기간중
9.8kg에서 26.6kg으로 늘어나 3 배 가까운 증가
율을 보였다.

그동안의 변화를 종합하여 볼 때 전분질식품으
로 구분되는 곡류와 서류(薯類)의 소비가 대체로
줄어들고 지방과 단백질 그 중에서도 동물성단백
질의 공급원인 축·수산물의 소비와 채소류 및 과
실류 소비가 늘어난 점을 특징지을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른아닌 조달조건
의 변화이며 그 중에서도 경제발전
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이 핵심적인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조달
조건
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식품소비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리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그리 쉽
지 않다. 단지 우리나라와 식생활이 비슷하면서

도 이미 식생활패턴의 변화를 경험한 이웃나라인
일본, 대만의 식품소비구조 그리고 성장후 소비
자의 주류가 될 어린세대의 식생활습관에서 앞으
로 우리나라의 식생활구조변화의 단면을 내다볼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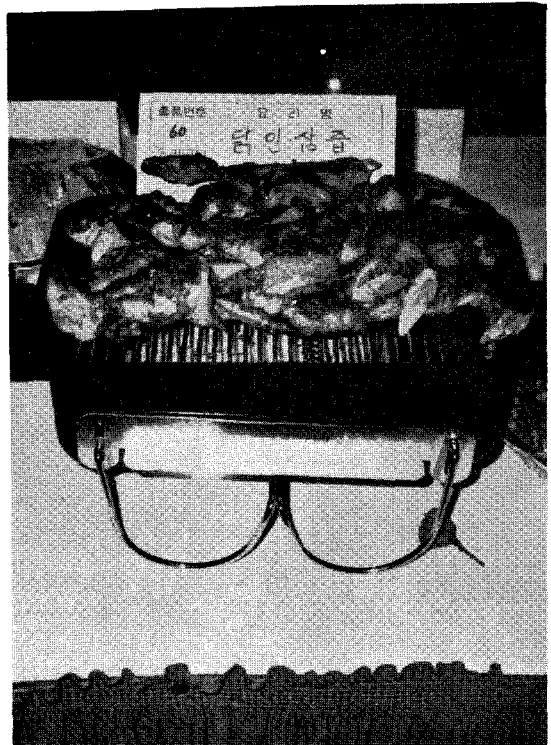
〈표 2〉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한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이다.
1985년도 한국의 1인 1일당(一人一當) 에너지
공급량은 2,687Kcal로써 1984년도 일본의 2,
594Kcal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1985년 대만의 에
너지공급량 2,815Kcal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
다.

한편, 1984년도 우리나라의 1인 1일당 총 단
백질공급량은 86.6g으로의 일본, 대만과는 비수
한 수준이다. 그러나 총 단백질공급량 중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도 우리
나라의 경우가 32.9%로써 일본의 49.3%, 대만
의 47.8%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

〈표 2〉 1인 1일당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국 별	연 도	에 너 지 Kcal	단 백 질			지 방 질
			총공급량	동물성	동물성 비율	
			g	g	%	g
한 국	1985	2,687	86.6	28.5	32.9	51.8
일 본	1984	2,594	82.8	40.8	49.3	80.7
대 만	1985	2,815	83.3	39.8	47.8	112.3
미 국	1979~81	3,641	105.6	71.5	67.7	168.4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1985.



〈표 3〉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의 국제비교

단위 : kg, (%)

국 별	연도	쇠 고 기	돼지고기	닭 고 기	계
한 국	1985	2.93(20.3)	8.41(58.3)	3.08(21.4)	14.42(100.0)
일 본	1984	3.7 (17.5)	9.6 (45.3)	7.9(37.3)	21.2 (100.0)
대 만	1985	1.66(3.1)	34.23(63.5)	18.02(33.4)	53.91(100.0)

* () 내는 구성비임.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1985.

일본 「식료수급표」 1984.

대만 「Food Balance sheet」 1985.

고 같은 해 한국의 1인1日當 지방공급량(脂肪供給量)은 51.8g으로써 일본과 대만에 비하면 46~64%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영양공급실태를 일본, 대만과 비교해 볼 때 에너지공급량과 총 단백질공급량은 비슷한 수준이나 동물성단백질 공급량 및 지방공급량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조달조건이 계속 변하는 경우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은 동물성단백질의 주공급원인 육류소비량의 국제비교로써 한국, 일본, 대만의 쇠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다.

1985년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쇠고기소비량은 2.93kg으로써 이는 육류소비량 14.42kg(기타 육류 제외)의 약 20.3% 수준이다. 1984년도 일본의 총 육류소비량은 21.2kg으로 한국의 약 1.5배가 되며 육류소비 중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 수준으로써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1985년 대만의 경우를 보면 육류 총 소비량은 53.91kg으로써 우리나라에 비해 약 3.7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쇠고기소비량은 1.66kg으로 한국의 절반정도 뿐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한국민의 식품소비패턴을 종합적으로 전망할 때 소득탄성치가 높은 동물성단백질 식품인 육류 및 수산물, 채소류와 과일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하여 전분질식품인 곡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된다.



알 림

양계가족 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합니다

대상자 : 제한없음

종 별 : 제한없음

* 채택된 원고는 본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매월 게재코자 하오니 폭넓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월간양계 편집국으로 문의할것.

☎ 752 - 3571 ~ 2